

2025 명절예배 순서지

추석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더온누리교회

THEONURI PRESBYTERIAN CHURCH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로 84-9

063-211-1324 <http://www.theonnuri.org>

목 도

다 같 이

참 좋으신 하나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마음 다해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 송 -----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잊고) ----- 다 같 이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찬송가 559장)

KaMU

전영택 / 구두회

말 씀 ----- 역대하 1장 6~12절 ----- 다 같 이

6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 마리 희생으로 번체를 드렸더라 **7** 그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8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9**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11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12** 그 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구해야할 것"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하시고, 그를 창대하게 하심으로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지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회막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통치를 시작하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을 쓸고, 우선순위를 두어야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배가 먼저입니다 | 기브온 산당에는 모세 때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회막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놋제단에 "천 마리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6절) 성막에서 통치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솔로몬의 태도와 자세는 오늘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 준비할 부분들은 헤아릴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나라가 세워질 것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나요? 중요한 일정,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자리는 어디인가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삶의 예배로 다시금 나아가야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7절)라고 물으셨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게 될까요? 경제적인 부, 관계의 회복, 직면한 문제의 해결 등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이 사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위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곧, 자신의 뜻과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며 구한 것 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솔로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 인생과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였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약속하신대로 모든 것을 이끄시며,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과 사명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야합니다. 겸손하게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오늘도 인정하며,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는 곧 우리의 일상 속에 임하게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온 가족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온 가족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 **다 같 이**

주님, 먼저 예배의 삶으로 채워가며,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원함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주세요. 소중한 명절의 기간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서로 간에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온 가족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과 은혜 나눔 ----- **다 같 이**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은 오늘 말씀 안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주기도문 ----- **다 같 이**